

“불법폐기물 753톤 반입 용납할 수 없어”

군산시의회, 반출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역 내 지정폐기물공처리장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7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4일 정부가 군산시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폐기물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폐기물 753톤을 반입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복 음성과 강원 원주에서 하역을 거부했던 불법폐기물을 군산으로 들여온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30만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조치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구 의장은 “정부가 군산시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천에서 배출된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환경부는



폐기물 투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군산에 야적된 불법폐기물을 하루속히 반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군산에서 절대 처리가 불가하다”며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과 또한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배우고 소통하며 추억해요’

군산시 평생학습관, 제1기 강좌 수강생 모집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제1기 정규 및 특별프로그램 강좌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총 70개의 이번 강좌에는 단기과정 강좌, 야간강좌, 장기과정 강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되는 단기과정 강좌는 두완수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야간강좌는 드론, 통기타, 색소폰, 하모니카 등의 프로그램들이 개설됐다.

또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장기 강좌는 쉽게 떠나는 여행영어, 니하오 중국어, 일본어 첫걸음 등 주2회 회당 2시간씩 16주(64H)과정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18일 주1회 회당 2시간씩 20주(40H)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강좌’는 치매예방 백세체조(순수속 강사), 해피요가(박지현 강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은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에 있다며 배우고 소통하며 추억하는 인생의 장인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시민이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좌신청은 1인 2강좌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단기강좌 총 3만원, 장기강좌 총 8만원으로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이며 접수는 방문접수(50%, 신분증 지참)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을 통한 인터넷접수(50%)가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총 68억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개 28억원 ▲돌봄서비스 3개 사업 31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3개 사업 9억원으로 총 22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553만원) 또는 140%(4인가구 645만원)이하이며, 사업별 연령·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에 충족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별로 우선순위(연령순, 저소득, 질환자 등)를 적용해 이용자가 선정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군산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군산시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언어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경량칸막이 홍보 강화

익산소방서는 공동주택의 ‘경량칸막이’ 활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벽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칸막이에 대한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용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문화

관광 콘텐츠 청년인력 양성 등 총 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근무지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익산문화관광재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다.

모집대상은 지역에 거주(예정)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다. 모집인원은 기업분야 104명, 공공분야 8명으로 총 112명이다. 일자리정책과(859-521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익산시는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되며 폐렴증, 뇌수막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한다.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동 지역 예방접종 대상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 이전까지 익산시보건소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보건지소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기후변화대응 자연재해방지교육 실시

군산시가 최근 불철 이상저온과 가뭄, 여름철 폭염, 강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과수 자연재해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농업인회관 3층에서 관내 배, 사과 등 과수재배농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자연재해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교육은 지난해 4월초 이상저온으로 사과, 복숭아재배 3농가에서 0.4ha의 불임피해와 여름철 폭염으로 배재배 7농가 4.6ha가 과일 햇볕 데임 등 고온피해가 발생해 원예작물생리분야 전문가인 바이오플랜

류승권 대표의 토양관리, 재배관리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교육과 과수화상병, 곰보병 등병해충방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군산기상측정 이래 가장 낮은 온도(-15.0℃)와 가장 높은 온도(37.1℃)를 경신하는 등 기상변화가 극심한 한해였다”며 “올해에도 1월 강수량이 지난해의 4분의1 수준으로 적고 기온은 지난해보다 1.5℃이상 높게 진행되고 있어 기상변화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